

‘한미동맹’ 한반도 안보 핵심 축...파트너 십 매우 중요 향군, “한미동맹 강화 위해 다각적인 노력 해 나갈 것”



김진호 회장과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김진호 회장,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만나 안보현안 논의 러캐머라 사령관, 연합방위태세·한미동맹 어느때보다 확고

김진호 향군회장이 9월16일 서울 용산구 메인포스트에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김진호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동북아 정세와 안보의 근간으로 무엇보다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향군이 안보 핵심 축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최상의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언급하며 본인은 ‘파이트 투 나잇(즉각 전투준비태세)’을 위해 지휘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향군 원로들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진호 향군회장은 향군의 안보활동을 소개하면서 향군은 한미동맹 강화를 3대 안보활동 중점으로 선정하고 그동안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환영행사, 워싱턴 미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성금모금 및 지원, 미 참전용사 보은행사 및 마스크 지원, 국내 반미단체들의 집단행동 강력대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군은 앞으로도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연말에 주한미군 장병들을 위한 음악회 등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연합사령관은 향군이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온 것에 대해 놀라움과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자고 답했다.

한편 김진호 회장은 대담자리에서 러캐머라 사령관이 미군 중에서 해외 파병과 전투경험이 가장 많고 특히 김회장이 합참의장 역임 시 미 2사단 캠프 그리브스에서 작전장교로 근무한 인연을 소개하며 취임을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또 러캐머라 사령관은 병역 명문가라며 부인이 미 육사를 졸업하고 장교로 근무했고 아들도 해군장교로 근무했으며 누님과 매형도 미 육사를 나와 군 생활을 하였는가 하면 매형은 육군소장으로 예편한 전통적인 군 출신 집안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제69주년 향군의 날을 경축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 회원일동

향군, 6.25 전쟁 왜곡 중국 선전영화 상영 취소하라!

침략전쟁 가담한 중공군 영웅으로...국군과 UN군 능멸 향군 등 각계 비난 빚발, 수입사 상영취소...사과·반성



중국이 6·25전쟁의 금성전투를 주제로 만든 선전영화 ‘1953 금성 대전투’(원제 ‘금강천’)가 정부의 정식허가를 받아 안방에서 상영된다는 뉴스와 관련하여 향군은 9월8일 성명을 통해 영화 상영 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향군은 성명에서 이 영화는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북한과 함께 불법남침을 저질렀던 중국이 항미원조 7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영화로, 중공의 남침 사실을 정당화하고 중공군의 용맹성을 부각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금성전투는 6·25전쟁 막바지인 1953년 6월과 7월 사이 UN군과 중공군 40만 명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피흘려 싸

운 마지막 최대의 전투로 국군 1,701명이 전사하고 7,548명이 부상당했으며 특히 우리 영토 193km²가 북한으로 넘어간 잊지 못할 뼈아픈 전투라고 지적했다.

하물며 중공군 측은 국군의 전사자와 부상자를 모두 합쳐 5만 2,783명을 섬멸했다고 전사에 기록하고 있고 이를 대표적인 승리한 전투로 선전하고 있어 영화의 제작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영화는 6·25전쟁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국내 상영은 이들과 맞서 싸운 국군과 UN군을 능멸하는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 영화를 제작한 의도는 “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한 전쟁으로 본질을 왜곡하려는 것이며 6·25전쟁에 참전했던 국군과 UN군을 능멸하는 것이자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사드(THAAD) 배치를 문제 삼아 ‘한한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히 중국과 북한의 시각에서 제작한 정치 선전물을 우리 정부가 상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향군을 비롯한 각계의 항의성명이 이어지자 영화 수입사측은 “충분한 고민 없이 해당 영화를 수입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으신 순국용사를 포함해 모든 걸 다 바쳐 싸우신 참전용사분과 가족 분들 그리고 이번 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히고 상영을 취소했다.

정인규 경남 울산, 박동길 부산 향군회장 취임

김진호 회장, 승인장 수여 “조직정비, 회원 화합 당부”



회장 궐위로 인한 경남 울산 및 부산시 향군 임시총회가 9월2일, 14일 각각 개최됐다. 코로나 19로 인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임시총회에서 조직을 수습하고 재도약시킬 신입회장으로 경남 울산 향군은 정인규 회장을, 부산시 향군은 박동길 회장을 선출했다.

한편 김진호 회장은 9월16일 신입 회장에게 승인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흐트러진 조직을 정비하고 회원 화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동길 부산시 향군회장

- 예 육군 중령(3사10기)
- 제39사단, 제53사단 대대장
- 부산 해운대구 향군 사무국장
- 부산시 향군 이사

■ 정인규 경남 울산 향군회장

- 예 육군 병장
- (주)세계로디엔씨 대표이사
- (주)대은디엔씨 대표이사
- 창원 의창 성산구 향군회장

이달의 안보칼럼

9·9절 행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 정세

지난 9월9일 0시에 기습적으로 실시된 북한의 9·9절 행사는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이 수립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북한의 사회주의 5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힌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중앙보고대회, 영화상영, 미술전람회, 체육경기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예술공연, 야외, 문화오락행사, 군사 퍼레이드 등이 개최된다. 이날 실시된 퍼레이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면에서 과거와 대비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5대 명절 9.9절 과거와 대비되는 경축 행사

우선 퍼레이드의 시기이다. 북한의 중요 행사는 5의 배수의 해를 정주년이라 하여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예를 들어 5주년, 10년, 15주년...), 이번 9·9절은 73주년으로서, 근래 들어 2013년(65주년), 2018년(70주년) 등의 정주년 이외에는 퍼레이드를 실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날 퍼레이드는 의외의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더군다나 금년 1월, 8차 당대회 열병식을 포함하면 최악의 경제난 가운데에서도 년 2회의 퍼레이드를 실시한 것이다.

두 번째는 퍼레이드의 진행이다. 이날 퍼레이드는 정규군을 완전 배제하고 우리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노동적위군과 경찰격인 사회안전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무기는 포와 같은 일부 재래식 무기만 선보였다. 이는 북한의 전통적인 퍼레이드 방식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의 연출이었다.

세 번째는 김정은 총비서의 행동이다. 그는 행사를 위한 연설을 하지 않았으며 행사가 종료되고 그가 자리를 떠난 다음 김일성광장에는 주민들만 남아 예전처럼 불꽃놀이 축포 속에서 신명나게 춤을 추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최근 김정은 총비서가 보인 행동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는 퍼레이드에 앞서 대내·외 상황과 관련한 연설을 행하여 왔으며 심지어 지난 해 10.10절 퍼레이드에서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눈물까지 보이는 등 나름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다.

2019년,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양국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걸으면서도 중국과는 동맹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도 세계적인 이목으로 인하여 북한과 드러내놓고 본격적인 관계향상에 임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다.

내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 총비서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항상 북한을 돌아보아 왔던 것이 유엔의 대북제재이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범으로 인하여 작성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로부터 시작된 대북제재는 이후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적인 도발로 인하여 그 제재는 더욱 강화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졌으며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도달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하지만 확인할 수 없으며 방역을 위한 당국의 통제와 간섭이 강



장 광 열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화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정은은 올해 초에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5년간 매년 1만호씩 총 5만호의 살림집을 건설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평양에 1만호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사업이 김정은 총비서의 의지로 시행되는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도록 군과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 불안으로 인하여 각종 자재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더하여 금년도 북한은 기록적인 자연재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북한의 함경도 지역과 황해도를 중심으로 한 많은 지역이 상당한 수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정은 중심, 정치적으로 안정화

자연재해·인재 등 위기상황, 주민생활은 고통

현재 북한 내부는 정권초기에 비해 김정은 총비서를 중심으로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누적된 자연적·인재적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고통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정권 유지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북한 정권의 핵심계층에서 인지하면서 주민을 독려 및 위문하기 위해 금년 9.9절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과거 행사를 대외 과시 및 대내 홍보용 등의 다목적으로 활용하던 사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말할 수 있다.

9·9절 행사의 진행을 비롯한 최근 북한의 내외고 있는 변화무쌍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한미연합정보공조체계의 강화이다. 한미 양국의 대북 정보수집 및 공유체제를 강화하고 통합 분석체제를 구비함과 동시에 실시간 교류협력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준비이다. 한국은 평소부터 북한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비하고 있으며 관련 제원도 마련하여 왔다. 문제는 지원 시기와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대북지원에 대한 남북의 정치적 환경이 성숙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문제이다. 북한은 당분간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무기 체계에 대한 증강에 집중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재래식 무기의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 올해 초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신형 무기를 대거 등장시킨 점을 고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증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유심히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6·25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6·25 전사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시겠습니다.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시료채취 참여

채취대상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방법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군병원, 예비군 동대, 보훈병원, 전국 적십자병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서울현충원) 방문 또는 전화신청

신원 확인 시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지급

문의전화 **02-417-5255, 5414**

향군역사 바로알기 ㉔

향군 창설 60주년 기념행사 ‘국민안보공감 캠페인’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및 안보 공감대 확산

향군은 내년 10월8일 창설 70주년을 맞는다. 창설 70주년을 앞두고 10년 전에 실시했던 60주년 행사를 되돌아본다.

향군은 지난 2012년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17개의 주요행사와 13개의 관련행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연중 지속행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행사 명칭을 ‘국민안보공감 캠페인’으로 정했다.

행사는 향군 본회를 중심으로 각급회, 해외지회 등이 주도하는 호국안보활동, 문화행사, SNS 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대국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의지와 안보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최소의 비용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최소의 비용으로 성과 극대화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2012년 10월8일

거행된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이다. 이날 주요 행사는 현충원 참배, 청와대 예방, 호국안보 퍼레이드, 안보공감 비전 선포식, 안보공감 콘서트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오전에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이어진 청와대 예방 행사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형식으로 본회 회장단과 각급회 회장, 참전 및 친목단체장 등 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빈관에서 오찬과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참석한 향군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면서 “재향군인회가 안보의 중심에 있다”며 “전 국민이 강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거행된 기념행사에는 향군회원, 참전친목단체, 사회단체, 일반 시민 등 1만 2천여 명

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이 자리에서 기념식 행사인 안보공감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식순에 따라 박세환 회장 기념사, 박승준 보훈처장 축사, 박근혜 대선후보 축사에 이어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 축하 영상 메시지가 상영 되었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군의 최고 원로인 백선엽 장군의 축하 영상 메시지도 상영 되었다.

태극기 흔들며 서울 도심 행진 안보단체 자부심과 긍지 높여

호국안보 퍼레이드는 1만 2천 명의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을지로 입구 남대문 시장(승례문)을 거쳐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2km 구간에서 기수단의 선도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하는 회원들에게 시민들의 환호가 쏟아져 향군이 안보단체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펼쳐진 안보공감 콘서트는 국방홍보원의 대표 콘텐츠로 꼽히는 ‘국군방송 위문열차’를 유치하여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이날 출연한 연예인은 글로벌 가수 이문세, KCM, 걸그룹 달샤벳, 국민 가수 송대관, 적우, 언터처블 등 신구 가수들이 조화롭게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을 열광하게 했다.

그 외 기타행사로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대형 태극기에 새긴 ‘염원 태극기 만들기’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안보리본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로 창설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와 같이 향군 창설 60주년 행사는 사전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다채롭고 내실 있게 추진되었다.

안보전망대

국민 93%, “북한, 핵 포기 않을 것”

아산정책연구원 “한국인 외교안보 인식” 설문조사

아산정책연구원이 9월13일 발표한 아산리포트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에서 우리 국민 94.9%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93.3%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사됐다. 또한 2010년에는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찬성이 55.6%, 반대 44.5%였으나, 2019~2020년에는 독자적 핵개발 찬성이 각각 67.1%, 69.3%로 높게 나타났다.

남북 간 전쟁 가능성은 2020년 57.3%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고,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답은 42.7%였다. 전쟁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연령대별로 엇갈리는데,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비율은 20대에서 54.9%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60세 이상이 44.5%였다.

“국민 70% 이상 통일에 관심, 64% 통일 필요”

한국군의 대북 억지에 대해서는 72.3%가 우리 군이 단독으로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답했고, 27.7%가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단독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67%가 한국군이 단독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우리 국민 70% 이상은 통일에 관심이 있으며 64% 내외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015년으로 79.2%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7년 70.8%, 2018년 66.2%, 2019년 64.7%, 2020년 64.4%로 점차 낮아졌다.

이 리포트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아산연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20년 아산연례조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유?무선전화 RDD로 모집한 표본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으로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 ±2.5% 포인트다.

미국 북한인권위 “북, 한 미 인도적 지원 원치 않을 것”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9월 14일 “김정은 정권이 한국과 미국이 제공하는 백신을 받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나 미국 정부에 의한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의하면 그렉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한국, 미국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밝혀 온 북한이 주민들에게 한

국, 미국에서 제공하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안전이나 공공 보건을 우선하기 보다는 북한 정권에 유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고질적인 투명성 부족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거론하면서 북한이 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및 개발 사업과 관련된 모니터링, 즉 감시 및 평



가 기준 이행을 꺼려왔다고 덧붙였다.

국제원자력기구 “북한, 핵 프로그램 전속력으로 진행 중”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은 9월20일(현지 시간) 제65차 IAEA 총회에서 “북한에서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IAEA 이사회에서 영변 핵시설 원자로 재가동 조짐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우라늄 농축 공

장의 재가동 징후도 공개했다.

아울러 북한 강선 지역에 위치한 핵시설에서 계속되는 활동 징후가 있었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IAEA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MW 원자로와 관련해 “2021년 7월 초부터 냉각수 배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제안보협력의 장, 2021서울안보대화

‘국경 없는 안보위기와 다자적 대응’ 주제로 10번째 개최



국방부는 9월8일부터 10일까지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2021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를 개최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서울안보대회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을 위해 2012년에 출범시킨 국방 차관급 다자안보 대화체로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의 국방 관료와 민간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긴밀히 소통하며 국제 안보협력방안을 논의하는 1.5트랙의 장으로

가능해왔다.

2021 서울안보대화에서는 ‘국경 없는 안보위기와 다자적 대응’을 주제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한반도 이슈를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안보, 신종감염병, 사이버위협, 우주 안보위협 등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됐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따라 예정된 국제회의가 대부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생동감 있는 토론을 위해 주요 연사 및 패널들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현장에 참석하고 여타 해외 패널들은 화상으로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현장 관중으로 주한 외국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전 세계 안보 관계자들이 온라인으로 회의 내용을 참관할 수 있도록 국방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국방단신

2024년 고체 우주발사체 발사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16일 “고체 우주발사체의 주요 구성품들을 검증하고 통합하여 2024년경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 독자기술 기반의 고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었던 고체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국방 우주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액체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과 더불어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함으로써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 인도와 더불어 7대 우주강국을 향하여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LBM, 잠수함 최초 발사시험 성공



국방과학연구소(ADD)는 9월15일 ADD 종합시험장에서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SLBM에 대한 잠수함 발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SLBM은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되어 수중에서 발사되었으며 목표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

ADD는 그 동안 수 차례의 지상 및 수조 발사시험을 실시해 왔으며 이날 실제 잠수함 발사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

초소형 위성체계, 감시정찰 능력 확보

방위사업청은 9월10일 올해 8월 우주 방위사업 발전 전담 조직의 신설에 이어 군 정찰위성과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사업 등 우주 국방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군 정찰위성은 고성능 영상레이더와 광학위성이 탑재되어 한 차원 높은 해상도로 한반도를 감시할 수 있으며 위성 방문주기도 단축되어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5호 등 광학(EO/IR) 위성과 영상레이더(SAR) 위성을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횡수가 적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핵·미사일 등 위협을 실시간 탐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미국의 정찰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국방예산, 55조2천277억...전년대비 4.5% 증가

핵·WMD 대응체계 구축, 장병복지 증진, 국방 R&D 예산 반영

2022년 국방예산이 2021년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 원으로 편성됐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한 17조 3,365억 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37조 8,912억 원을 편성했다.

금번 국방예산 안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핵·WMD 대응체계 구축 등 전력증강 소요와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했으며, 최근 이슈가 된 급식 개선 및 장병복지 증진 소요와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방 R&D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먼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 군 정찰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등 핵·WMD 위협 대응 전력(4조 6,650억 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K-2전차, 울산급 Batch-III 등 군 구조개편 관련 전력 보강(5조 7,247억 원),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R&D), 잠수함구조함-II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2,610억 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3조 6,985억 원을 편성했다.

또 첨단무기체계 국내개발 역량 확보 및 국방 R&D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R&D 예산을 2021년 대비 12.8% 증가한 4조 8,841억 원으로 증액했다. 미래 첨단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 구성품·기술을 미리 확보한 후 체계개발 착수 여건을 마련하고, 미래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66% 증액했다.

그리고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구비하여 해외

수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방위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생태 구축을 위해 국방벤처기업 육성,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지원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전체 방위력개선 예산 중 국내투자 비중을 2021년 대비 대폭 높임으로써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군 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한 병영 생활을 조성하는 데 지속 투자할 예정이다. 균형 잡힌 영양공급이 가능하도록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대폭 인상하고(1일 8,790→11,000원), 조리병 위주의 급식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조리원 91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2,278→3,188명)

또한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서 구매, 자격증 취득, 체력단련 등에 지원되는 병자기개발비를 확대한다.

미래 전장을 주도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장비를 확보하는 등 한국판 뉴딜과 스마트 국방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장병 복무 의욕 고취를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는 확실히 지원하고 전투력 강화를 위한 국방인력구조 정예화도 계획대로 시행한다.

병사 봉급을 인상하며 기본급리가 5%수준인 병 내일준비적금에 가산금리 1%를 국가가 추가 지원, 전역 시 찾는 병 내일준비적금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1/3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지원사업도 신규 편성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면서도 전투력은 강화하기 위해 부사관 937명, 군무원 4,566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보훈문화 확산 기여 11개 단체 감사패

보훈가족 사기 진작,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부산교통공사, (주)경남신문사 등 11개 대의 유공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사 내에 ‘보훈의 길’이라는 ‘보훈홍보관’을 조성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독립유공자 3인과 함께 포토 존을 설치하여 보훈문화를 널리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부산도시철도 역사 전광판에 보훈 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송출하고, 중앙역사 내 상시 알림창(배너)을 설치하여 각종 보훈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주)경남신문사는 36년간 ‘경남보훈대상’ 시상상을 통해 모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발굴·포상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경남동부보훈지청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회에 걸쳐 청소년대상 호국보훈 문예 공모전을 개최해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해 왔으며, 경남의 항일독립운동가 찾기, 학술토론회 개최 등 독립운동 선양을 위해 노력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범국민적 감사와 예우를 높이는 보훈선양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영국현지 임진강 전투 70주년 기념예식 참석

보훈처, 한국전 참전용사 희생과 헌신 기려...‘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9월26일(현지시간) 영국 글로스터 대성당에서 열린 임진강전투 70주년 기념 예식에 참석해 현화하고 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6·25전쟁 당시 임진강 일대에서 성공적인 방어작전을 펼친 영국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9월24일부터 28일까지 영국 현지를 방문, 임진강 전투 70주년 기념예식에 참석한 후 한국전참전비 헌화 및 참배, 참전용사 및 유족 초청 오찬 등의 행사를 가졌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26일 글로스터 대성당에서 진행되는 ‘임진강 전투 70주년 기념예식’에 참석, 한국전에 참전하여 헌신한 영국 참전용사를 기리고 글로스터 군인들의

시가행진을 관람했으며 27일에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비를 찾아 영국 참전용사들과 헌화·참배행사를 갖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렸다.

이어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해군 회관에서 열린 감사오찬에서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메달’을 수여하고 올 해 6월에 수여한 고 더글라스 드라이스데일(Douglas Burns Drysdale)중령의 을지무공훈장을 유족을 대신하여 왕립 해병대 자

선단체(royal marines charity) 대표에게 전달했다.

영국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육·해군 56,000명을 파병하여 이 중 1,078명 전사, 2,674명 부상, 179명이 실종되는 희생이 있었으며 임진강 전투는 1951년 4월22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일대에서 영국군 제29여단(글로스터셔 연대 제1대대 등 5,700여명)이 중공군 3만여명의 남하에 맞서 싸워 서울 침공을 저지한 전투다.

2022년 국가보훈처 예산 5조8천530억 편성, 보훈의식 제고

각종 수당 인상, 근접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국립묘지 확충·조성, 재대군인 주간 지정 등

2022년 국가보훈처 예산이 5조 8,530억원으로 편성되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하고 4조 5,382억원을 편성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하여 3조 1,975억원을 편성했다.

보상금 외에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도 5% 인상하여 각각 2,994억원, 2,984억원, 566억원을 편성했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 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

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도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보훈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약제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7,560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2022년에는 640개소까지 확대한다. 또한 ‘22년 4분기부터 위탁병원 이용 시에도 약제비를 지원한다.

12만여 명에 달하는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교통편의 개선하고, 친환경차량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76억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상이 국가유공자는 거주지 외 타

시·도 대중교통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별도의 신분증(수송시설이용증서 등)을 제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전국 호환이 되는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시내버스와 지하철 단말기에 접촉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정부시책에 맞춰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차량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뿐만 아니라 친환경 수소, 전기차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묘지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 조성을 위해 446억원을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하여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연도별로는 ‘23년까지 4개 호국원의 확충사업을 완료하여 115천기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 50천기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권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편의와 수도권 국립묘지의 조기 만장에 대비하여 강원권 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중·장기 복무 제대군

인의 전직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제대군인주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5억원을 편성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2022년부터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25만원에서 50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100%와 40%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제대군인 주간’이 법정 기념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사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다.

시 도회장 릴레이 제언 / 향군을 말한다 ㉓

화합과 친목 도모, 기본에 충실한 희망의 새 향군 구현

회원과 소통하며, 단합... 조직안정 통해 안보단체 위상 정립 조직슬림화 한계, 향군조례 개정으로 극복... 재정 안정화 단초



백 상 록
전라북도 재향군인회 회장

2021년 3월8일 전라북도재향군인회 제 63차 정기총회를 통해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작지만 강한 조직,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셨던 주대진 전임회장이 전북향군 발전을 위해 쌓아 온 탄탄한 기반 위에서 나는 지난 6개월 간 더욱 발전된 향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40여 년간 향군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안보단체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했다.

먼저 회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나는 3월 8일 취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조치한 업무로 조직안정을 통한 향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 군회와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3월11일부터 19일까지 시 군회를 방문 의견을 청취하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은 편견이나 오해 등을 일소하고 언제든지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이 넘치는 임원관리를 위해서다.

그동안의 노고 또한 잊지 않고 위로함으로써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이후에도 7월부터 8월까지 14개 시 군회를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사소통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였다.

둘째, 재정 안정화를 위한 회무 추진이다.

도회 예산을 최소화하고 조직 슬림화

를 추진했으나 슬림화로 인한 활동의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강화를 통한 예산확보 노력이다. 우선 직접 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찾아가서 운영비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협조하였으며 향군조례 개정을 통한 현실성 있는 운영비(인건비)지원을 명문화한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지난 9월1일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를 거쳐 9월10일 전라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이를 법적근거로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어 전북향군 재정 안정화를 증축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기본에 충실한 조직관리를 통한 안보단체 위상 정립이다.

기본과 기초에 내실을 기하여 작지만 강한 조직을 완성하기 위하여 내부 직원관리와 직무교육 그리고 각종 행사를 통한 향군위상 강화 활동으로 향군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또 임직원 사기진작 및 자금심합양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시·군단위까지 확대 전개할 방침이다.

튼튼한 조직의 뒷받침 속에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로서 위상에 걸맞은 안보의식을 갖고 전북도민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 확립을 위한 안보의식 계도 및 안보활동을 전북향군이 주도하여 보훈,

안보단체와 연계한 안보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넷째, 회무질서 확립을 통한 지휘 의도 구현이다.

코로나19가 향군활동을 다소 위축시킨 것이 사실이지만 전북향군은 그간 대면활동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안보활동은 본회지침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실시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범유행으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때 본회에서 향군 TV 유튜브 방송을 개설,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안보활동의 폭을 넓히고 또한 폭넓은 대상을 상대로 향군 홍보활동과 안보활동을 병행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서 반가운 마음을 먼저 전하며 보다 다양한 계층이 시청할 수 있도록 도회와 시·군회에 향군 TV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독려하고 있다.

회무질서 확립과 지휘의도 구현을 위해 본 회장님과 본회의 지침 및 강조사항은 모든 회무에 우선하여 실시하여 회장님의 지휘의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나는 지난 5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군의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착공식을 TV방송을 통해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에 감사를 표하면서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참전용사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이 뭉클함과 감동을 느꼈다. 아울러 역사적 상징물로 후세에 길이 남을 역사의 한 자리에 우리 향군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안보는 진보·보수, 세대를 뛰어 넘어 생존의 문제이며, 생존을 위해 향군1,000만 회원들이 똘똘 뭉쳐 향군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단체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아울러 “천하가 평화로울 때 위기에 대비하라”라는 천하수안망전필위(天下雖安忘戰必危)의 정신자세로 장차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 1등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면 한다.

전북지역의 안보단체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가 엄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원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향군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희망의 새 향군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안보단체 재향군인회의 무궁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향군TV 유튜브 방송 '향군 안보정론' 개설

□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효과적인 대국민 안보활동 추진

□ 내용

- 유튜브 방송명 : 향군TV 내 향군 안보 정론 / 이슈체크
- 방송 주제 : 국가안보 및 국방 관련 이슈
- 영상 업로드 주기 : 주2회(매월 8회 이상)
- 방송 시작 일시 : '21. 5. 1일부
- 대상 : 향군회원 및 국민

□ 출연자

- 향군에서 선발된 안보교수진

□ 방송 찾아보는 방법

- 유튜브 검색창에 '향군TV', '향군 안보정론', '이슈체크' 검색
- 주소 : YouTube.com/향군TV

향군회원들과 국민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대구시 향군, 대구가톨릭대와 업무협약 시민교육 상호 협력·인적 네트워크 상호활용



대구시 향군(회장 김인남)이 9월14일 대구 가톨릭대 본관에서 대구 가톨릭대학교(총장 우동기)와 지역사회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 기여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윈-윈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 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한 학술연구 및 시민교육 상호 협력 △연구자료, 간행물, 학술정보, 우수 연구 인력 및 인적 네트워크 상호활용 △협약기관의 공간과 시설 등 인프라의 공동이용 △상호협의를 따라 전문교육에 필요한 인적교류 및 강의지원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거제시 향군 여성회, 해병대 전우회와 환경정화활동



경남 거제시 향군 여성회는 9월 26일 해병대 거제시 전우회와 함께 장목면 외포리 소계마을 앞 바다에서 방역수칙 준수한 가운데 수중정화활동, 해안쓰레기 정리 등 바다환경 정비활동을 펼쳐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해안가에 떠밀려온 각종 해양쓰레기와 스티로폼 등 약 2.5톤을 수거했다.

거제시 향군과 해병대전우회는 “소중한 우리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 향군,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폐기물 2톤 수거, 장관 교체 및 파손된 집수리 지원



충남 아산시 향군(회장 강주현)이 9월4일 아산시 선장면 행복키움 추진단과 함께 관내 선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치매와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집을 찾은 아산시 향군회원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쌓아놓은 폐기물을 수거하고 장관 교체 및 일부 파손된 집수리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만들었다.

아산시 향군회원 35여명은 이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어서 마음이 기쁘다”며 4시간 동안 2톤 가량의 쓰레기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경북 경산시 향군, 헌혈 운동 전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혈액수급 어려움 해소



경북 경산시 향군(회장 유윤선)은 9월7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보태기 위해 헌혈운동을 전개했다. 대구대 ‘헌혈의 집’에서 진행된 헌혈에는 향군 회원을 비롯하여 50사단 경산대대 장병, 영

남대 군사학과와 대경대 군사학과 학생 등이 참여했다.

이날 유윤선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헌혈행사를 갖게 됐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 육군 제2보병사단 박진전투 기념비 제막식



경남 창녕군 향군(회장 이상원)은 9월9일 창녕군 소재 박진전쟁 기념관에서 거행된 미2사단의 박진전투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굳건한 안보의지를 다졌다.

안보전략논단 발간

- 향군회원에게 국내·외 안보현안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보전략논단’을 매월 발간합니다.
- 향군홈페이지 ‘안보전략논단’ 배너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보 전략연구원

유해발굴 작업, 송고한 호국보훈사업

강원도 양구 향군, 국군장병 노고 격려



강원도 양구군 향군(회장 허남흥)은 9월17일 6.25 전쟁 당시 전투가 치열했던 양구군 백석산 지역에서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군부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허남흥 회장은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나라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는 송고한 호국보훈사업인 만큼 장병들의 안전에 유의하며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석산 지역의 유해발굴 사업은 8월16일부터 10월1일까지 약 7주 동안 육군 제21보병사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양구군 향군은 2014년부터 위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백석산 전투는 6.25 당시 국군 제7사단과 제8사단이 1951년 8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전술적 요충인 백석산을 탈취하기 위해 북한군 제12사단 및 제32사단을 격퇴한 전투다.

고 권형오 전 하남시 향군회장 선행시민 표창 추서

16년 향군에 몸담으며 안보 의식 고양 및 호국정신 함양 기여

지난 7월 지병으로 별세한 고 권형오 전 하남시 향군회장에게 선행시민 표창이 추서됐다.

하남시는 9월9일 표창을 추서하며 권형오 회장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공적이 크다”며 선행시민 표창 추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전수식에는 부인 최한나씨가 고 권형오 회장을 대신해 표창을 받았으며 권 회장의 아들(오성)과 손주들(준혁, 찬혁)이 자리를 함께해 의의를 더했다.

고 권형오 회장은 2005년부터 하남시 향군에서 활동하며 두 번의 대통령상 수상으로 하남시 재향군



인회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끌었다.

유튜브방송 「향군TV」 채널운영

※ 접속방법: <https://youtube.com/향군tv>

향군TV 바로가기 ▶



각급회 소식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향군 각급회 활동

(8월21일~9월20일)

서울시 향군



서울시회 : 9월8일, 9일 강남, 강북 2개조로 나눠 구회장 간담회를 갖고 주요추진 업무 등 회무 논의.

노원구회 : 9월13일 추석을 앞두고 관내 장애인 재활시설 '더-홈'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

영등포구회 : 9월10일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현충시설 반공순국용사 위령탑 주변 잡초제거 및 환경정화 활동.

동대문구회 : 9월16일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현충시설 장영당(16지사 위령비) 주변 잡초제거 및 환경정화 활동.

마포구회 : 9월17일 흥제천 일대 취약지역 자연정화활동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기여.

부산시 향군



부산진구회 : 9월10일 추석을 앞두고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에서 관내 보훈단체장들에게 위문품 전달.



기장군회 : 여성회는 9월9일, 15일 기장체육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자 봉사 활동 실시.

대구시 향군



동구회 : 9월6일 배기철 동구청장을 초청하여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보조금 등 현안 업무 논의.

서구회 : 9월5일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가 백선엽 장군 및 천안함 46용사 묘역 참배.



남구회 : 9월2일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하여 코로나 19 극복운동 적극 동참.

수성구회 : 9월9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원로회원들을 초청하여 백미 및 라면을 전달하고 위로.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9월3일 향군과 보훈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향군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에게 향군공로 휘장 수여.



남동구회 : 여성회는 9월9일 코로나19와 낮은 사회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후원물품을 논현 경찰서에 전달. 구월4동회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군부대를 방문, 장병 위로.

경기도 향군



수원시회 : 9월1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자매부대를 방문, 국방 의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로.



성남시회 : 9월13일부터 18일까지 수정구 코로나 19 접종센터에서 접종지원 봉사 활동 실시.

강원도 향군



강원도회 : 9월15일 양양군 향군회관에서 권동룡 회장, 양양, 고성, 속초, 강릉, 동해 향군회장, 강창구 육군 제8군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38선 돌파 기념행사 진행 등 현안 논의.



동해시회 : 8월26일 동해시 실내체육관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방문, 의료진을 위로하고 격려.



원주시회 : 8월23일 관내 서울매일치과와 향군가맹점 협약식을 갖고 회원 복지 증진.

홍천군회 : 9월14일 일손이 부족한 고령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 댁을 방문, 배수확과 선별작업 봉사활동.

충청북도 향군

충북도회 : 추석을 앞두고 참전 및 국가 유공자에게 지역생산 햅쌀(10kg)을 전달,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해.



과산군회 : 여성회는 9월7일 전 주민들에게 배포될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포장 봉사활동 실시.

충주시회 : 청년회는 9월11일 추석을 맞이하여 몸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생필품 전달.



제천시회 : 9월14일 추석을 앞두고 남현동 주민, 향군 회원, 공공근로 회원에게 쌀20포대 및 라면 80박스 전달.

대전 충남 향군

대전 서구회 : 9월7일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기한 교수를 초청, 최근 군부대 성폭력문제를 주제로 안보강연 실시. 여성회는 9월18일 추석을 앞두고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독거노인 가정에 선물 세트 전달.



예산군회 : 9월9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2개 읍면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봉사 활동을 실시.



보령시회 : 9월11일 추석을 앞두고 지역 김좌진장군 묘역, 충훈탑 환경정화활동 실시하여 애향심 및 애국심 고취.

전라북도 향군



전북도회 : 9월7일 향군회관을 방문한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전라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 9월13일 중앙고속 전주영업소 직원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하고 노고 격려. 여성회는 9월13일 전북농협, 전북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추석명절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장수군 일원에서 농촌봉사활동을 실시.

장수군회 : 장수군 지역대를 방문, 지역 대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군 소개 및 안보현안 논의. 9월15일 한누리당 공원에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익산시회 : 8월25일 회관 환경정화에 참여한 장애우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전달.



군산시회 : 유희옥 회장과 김순미 여성회장이 9월3일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2021년 양성 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각각 군산시장상과 군산시의회장상 수상. 9월11일 추석을 맞아 신영시장과 공설시장 일대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및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진행.



전주시회 : 9월7일 추석을 앞두고 지역 방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주대대를 방문, 위문금을 전달하고 위로. 9월15일 미래노안경·콘텐츠와 향군 할인가맹점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복지 증진.



무주군회 : 9월9일 무주군청을 방문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전달.

정읍시회 : 9월1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방위에 여념이 없는 자매 부대를 방문, 장병위문.

김제시회 : 9월16일 추석을 맞이하여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 캠페인 전개.

부안군회 : 9월16일 추석명절을 맞아 국

가유공자 회원에게 명절선물 전달. 여성회는 9월15일 한가위를 맞아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세대를 찾아 명절선물을 전달하고 위로.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서구회 : 여성회는 9월1일 서구 행정역 일대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실시.

광주 광산구회 : 여성회는 9월14일 추석을 맞이하여 향군회관에서 소외계층, 불우한 이웃에게 쌀국수, 송편 나눔행사 실시.

순천시회 : 9월15일 6.25참전용사기념탑 공원 3차 정화작업 실시.



보성군회 : 8월31일 김종길 도회 안보부장 초청,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무안군회 : 8월 21일 무안읍내 하천변에서 환경정화활동 실시.

경상북도 향군



문경시회 : 8월30일 문경대대를 방문,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6.25전사자 유해발굴 장병 격려.

청도군회 : 9월8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청도5대대를 찾아 위문품 전달하고 장병들을

위로.



안동시회 : 9월10일 대화동 관내 취약가구 지원을 위해 대화동행정복지센터에 라면 50박스(75만원 상당 물품) 전달.

영주시회 : 9월7일 봉현면 6.25선양비와 광복공원내 충혼탑에서 환경정화활동 실시. 부석면회는 9월7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감곡교에서 봉화 수식방향 일대에 걸쳐 풀베기 봉사활동.

경남 울산 향군

통영시회 : 여성회는 9월2일 통영시 실내체육관 백신 접종 센터를 찾아 간식 위문품을 전달하고 의료진들을 격려.



하동군회 : 9월1일 충혼탑을 찾아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에 대한 참배행사를 실시하고 안보의지 다져. 9월11일 추석을 맞이하여 불우회원 및 회원들에게 선물 전달. 9월14일 적량면 호국공원 호국공원 정비사업 안전기원제 참석.



밀양시회 : 여성회는 9월9일 밀양시장애인복지관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독거노인가정에 명절음식을 나눌수 있도록 후원금 전달.

거창군회 : 9월14일 39사단 거창대대를



찾아, 지역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에게 위문금전달.

거제시회 : 9월14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복지시설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 생필품과 과일 전해. 9월10일 추석을 맞이하여 연초면 연초고등학교 인근 국군묘지를 참배하고 벌초작업 실시. 장승포동회 여성회는 9월16일 추석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캠페인 실시.

창녕군회 : 9월1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여보훈단체들에 감사와 정성이 담긴 선물 전해.

김해시회 : 여성회는 9월15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6.25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단체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9월1일 국가유공자 휠체어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0명에게 휠체어를 전달하고 위로. 9월8일 제379군사안보지원부대를 방문, 지휘관과 환담하고 국도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 100만원 전달.

제주시회 : 9월16일 추석을 앞두고 해병대 제92대대를 방문,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 격려



서귀포시회 : 남원읍회는 8월28일 추석을 맞이하여 충혼묘지 찾아 예초작업 및 비석 닦기 등 정비활동 실시.

국방일보 사진전,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軍人)입니다'

제73주년 국군의 날 맞아 전쟁기념관 수변공원에서 개최

2021년 국방일보 보도사진전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軍人)입니다'가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한 전쟁기념관 야외 수변공원에서 10월10일까지 열린다.

국방홍보원과 전쟁기념관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나는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 '나는 행복한 군인입니다', '나는 유능한 군인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합니다' 등 4개의 주제로 국방일보 사진기자들이 전·후방 각지에서 장병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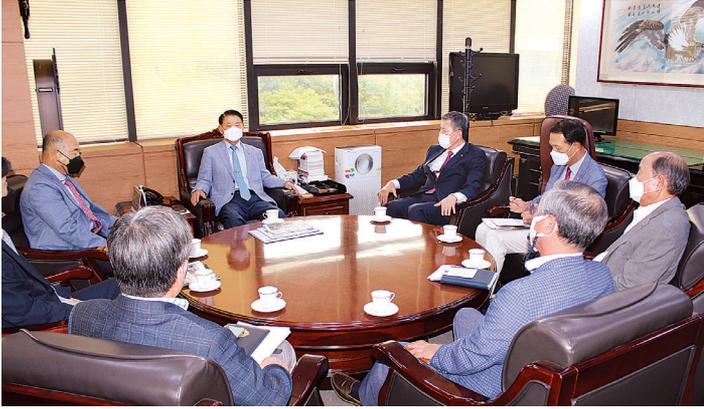
함께하며 촬영한 인물사진 50점과 그들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전시 내용은 국방홍보원과 국방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e-book으로도 만나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에도 게재된다.

이번 전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강한 국군의 모습을 장병 개인의 인물사진으로 담아 장병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대군 신뢰도와 대국민 안보 공감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성우회, 한미동맹 단체장 초청 환담

한미동맹단체 격려 한미동맹 강화 기여



성우회(회장 이종옥)는 8월30일 한미동맹재단 정승조 회장(예육군대장, 전 합참의장), 한미우호협회 회장(예 육군중장, 전 국회의원)등 주요 한미동맹 단

체장들을 초청하여 한미동맹 헌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종옥 성우회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행사는 불확실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제한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맹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동맹단체들을 격려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종옥 성우회장은 “한미동맹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양 단체가 앞으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헌신적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성우회도 이 활동에 보다 큰 관심과 지원을 증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우회와 한미동맹재단, 한미우호협회는 이날 “힘을 합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건강정보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요로결석」질환

요로결석은 소변 내 결석 성분(주로 칼슘, 수산염, 인산염 등)의 농도가 높아져 결정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소변의 농도가 진해지거나, 소변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잘 발생한다. 또한 요로결석의 발생은 수분섭취 감소, 요량의 저하, 온도, 기후, 식습관, 유전적 요인, 신체 상태, 약물, 직업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증상

산통(경련성 통증)은 결석의 위치 및 크기, 결석으로 인해 요로가 막혀 있는 정도, 감염의 유무 등에 따라 다르나 가장 흔한 것은 심한 통증이다. 결석이 요관에 내려와서 움직이거나 폐쇄를 일으키면 갑자기 칼로 찌르는 듯한 격심한 통증이 옆구리에서 시작하여 복부나 허벅지 다리, 회음부 쪽으로 뻗치기도 한다. 자세를 바꾸어도 호전이 없고 식은땀을 흘리며 기어 다닐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이것이 몇 분 또는 몇 시간 계속되다가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통증이 사라져도 결석이 배출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으니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혈뇨는 요석이 있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현미경적 혈뇨 혹은 육안적 혈뇨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발열과 감염은 요석에 의한 합병증으로 요로계에 염증(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열, 오한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는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오심, 구토 등의 소화기계 증상은 많은 환자에서 동반될 수 있으며 소아환자에서는 특별한 통증 없이 소화기계 증상만 나타나기도 한다.

결석의 위치가 요관에서 방광으로 들어가는 부위에 있을 때 혹은 방광 내 결석이 있는 경우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본 후에 남아 있는 것 같은 잔뇨감 등 방광자극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신장에 있는 결석은 통증 등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건강검진 등으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옆구리나 측복부의 불쾌감이나 둔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다.

치료(수술)법

결석의 치료 방법은 결석의 위치, 크기, 성분, 환자의 증상 정도 및 의학 상태,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연배출,체외충격파 쇄석술, 내시경적 제거술, 경피적 신결석제거술, 복강경/로봇 수술이 있다. 자연배출은 1cm 미만의 요로결석에서 권고되고, 충분한 수분섭취(약 2.5~3L)가 동반되어야 한다. 5mm미만의 작은 결석은 자연배출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전립선 비대증에서 쓰이는 알파차단제를 같이 사용하면 하부 요로결석의 배출을 도울 수 있다.

자연배출을 위해서는 환자의 통증이 심하지 않아야 하며,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이 없어야 한다. 한 달 정도의 보존요법이 실패하거나 증상 악화, 혹은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한다.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마취가 필요하지 않으며 진통제를 사용하면서 대부분 외래에서 진행된다. 요관결석 및 신장결석에서 가능하다. 다만 방사선 투과성 결석이거나 뼈 등에 결석이 가려지게 되면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결석이 단단하면 성공률이 떨어진다. 요관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은 연성 요관경의 도입과 레이저의 기술 발달로 성공률이 높아진다.

다만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수술 후요관 부목의 삽입으로 인한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 경피적 신결석제거술은 신결석의 크기가 크거나 신하극에 결석이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전신마취가 필요하다. 요관 내시경보다 출혈의 위험이 높다. 복강경 로봇 수술은 전신마취가 필요하다. 요로의 해부학적 이상이 있거나, 내시경적 수술이 실패한 경우에 주로 이루어진다. 내시경 및 복강경 기술의 발달로 최근에는 개복 수술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로, 결석환자들은 하루 요량을 2~2.5L를 목표로 하고 수분섭취를 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과도한 수분섭취는 전해질 이상을 유발할 수 있고, 요량증가에 따른 빈뇨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소변으로 칼슘배설을 증가하게 만들고, 이는 요로결석의 흔한 형태인 칼슘석의 태의 하나인 칼슘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요 중 칼슘의 농도가 높은 환자는 저염식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는 것이 요로결석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다. 맥주를 마시는 것은 일시적으로 요량증가를 유발하여 결석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맥주에는 결석 물질인 수산이 많이 들어있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서 권장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향군 할인가맹점

▲ 향군 할인가맹점 협약 업소현황 전국 1,172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시 사전 예약

▲ 향군 할인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 (http://korva.or.kr) 향군 할인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지 해당 지역 시·도 / 시·군·구 재향군인회로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서울신세계안과의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52,와이스퀘어4층) 1599-7397 : 비급여 10%
- 서울매일치과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3) 033-812-2882 : 비보험 10% 등
- 실로암노인전문병원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514번길 229-34) 031-867-3131 : 비급여 50%(가족포함)
- 양주우리병원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백은로 261 B2~B4층) 031-837-5100 : 비급여 10% 이상
- 식당/음료
- 응궁장어마을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55번길 35) 055-334-3643 : 10%
- 고향맛집 (충북 제천시 송문로5) 043-643-1290 : 10%
- 맥아당 제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31-21) 043-265-0404 : 10%
- 기타
- 유)국제여행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107) 063-291-3434,3444 : 10%
- 하나은행, 하나카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58-4) 1599-1111 : 카드 신청시 6만원 지급 및 보이스피싱 관련 보험 등
- 가족재가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54, 1층) 063-277-4632 : 의료보험 적용 외 10%
- ㈜팜텍코리아 (충남 금산군 진산면 휴양림로 231) 070-7017-1228 : 취급제품 10%
- 늘푸른 조경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83-60) 010-5079-7329 : 1일 조경비 10%

▲ 우수 가맹점 현황(24개)

병·의원/의료기기

- 병·의원/의료기기(11개)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051-

- 990-6114 : 10~20%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보니파시오 요양병원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43-5) 042-717-1000 : 20%
- 성심치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3) 031-747-4340 : 10%
- 연세안과의원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65번길 17) 032-543-3471 : 정상가 3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남해안대로 857) 055-644-1777 : 10~15%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1577-5800 : 비급여 10%, 제증명 50%
- 거봉백병원 (경남 거제시 계룡로 5길 14) 055-733-0000, 비급여부분 10%
- 실로암노인전문병원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514번길 229-34) 031-867-3131 : 비급여 50%(가족 포함)
- 서울척병원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47길 8) 1599-0033 : 비급여 10%
- 서울매일치과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3) 033-812-2882 : 비보험 10% 등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읍 새재2길 32-3) 054-504-7077 : 객실 30%
-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010-4692-1219 : 20~30%
- 신안비치호텔 (전남 목포시 해안로 2) 061-243-3399 : 객실 30%
- 웨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02-221-2000 : 정가의 40~50%(다락스 객실, 조식)
- 그린라군 호텔 인 설악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41) 010-6728-2030 : 특가

기타

- 두산익스프레스 (대전시 서구 월평중로3번길 95) 042-488-0424 : 이사비용 10%
- 진주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엠플러스웨딩(군인공제회관 내)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 군인공제회관 3,4층) 02-2190-2500 / 2222 : 15%
- 코바플라워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48-1)02-3679-7070 : 근조 3단 화환 78,000원 / 축화 3단 화환 59,000원
- 아이랜드 & 렌즈타운 당진점 (충남 당진시 중앙2로 21-5) 041-354-0008 : 10%
- 가족재가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54) 063-277-4632 의료보험 적용 件 외 10%
- 유)국제여행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107) 063-291-3434 : 10%
- 이담장례식장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747) 031-866-7300 : 빈소사용료 50%

특별기획 / 호국산성 기행

⑨ 부산 금정산성

일본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왜구침략 방어위해 축성 성곽길이 17km 국내 최대, 낙동강 하구와 동래지역 흰히 조망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은 일본과 가까운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왜구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특히 부산은 왜적이 침입할 때 늘 최전방이 되었고 그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더 많은 성이 축조되었다.

이 가운데 금정구의 금정산성은 규모가 가장 크다. 금정산의 정상인 고당봉을 정점으로 해서 북쪽으로 원효봉, 남쪽으로 동제봉, 서남쪽으로 상계봉, 파리봉 등을 잇는 성곽의 길이가 자그마치 17km이며, 넓이는 8,213㎡이다.

이만한 규모는 우리나라에 축조된 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이기도 하다.

성곽의 모양은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은 타원형이며, 높이는 곳에 따라 차이가 나 1.5m에서 3m 정도이다.

이렇게 큰 규모의 성이 언제 처음 축조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래 전부터 왜구의 침입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신라시대부터 어떤 형태로든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남아 있는 산성의 규모와 형태를 추적해 된 것은 숙종 29년(1703)때이다.

현재 금정산성에는 동·서·남·북문이 모두 복원돼 있고 이곳을 중심으로 성곽이 쪽 연결돼 있으며, 서문과 남문 사이에 하나, 남문과 동문 사이에 하나, 동문과 북문 사이에 두 곳의 망루가 있어 곳곳에서 낙동강 하구와 동래지역을 흰히 내려다볼 수 있다.

성의 입지로서 매우 유용하다는 이야기도 되겠다. 하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싸움이 치러졌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일제강점기에 산성 안의 건물들이 파괴되고 무기도 몰수되었다고 한다.산성이 넓은 만큼 산성을 찾아가는 길도 여럿이고 대문들도 저마다 개성적이다.

우선 가장 쉽고 편리하게 대중화된 길은 동래온천을 거쳐 동문으로 오르는 길이다.

동문은 옛날 동래읍성 쪽에서도 접근하기 쉬워 금정산성의 4대문 가운데 정문처럼 이용되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길은 범어

사에서 북문을 거쳐 올라오는 등산길이다. 범어사에서 2.5km 정도 산길을 올라오면 북문인데, 이곳은 금정산의 주봉인 고당봉에서 가깝다.

금정산성의 4대문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이지만, 고당봉으로 올라가면서 북문을 내려다보면 성곽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관이 연출된다.

서문을 보려면 화명동 쪽으로 가야 하는데 동문보다 규모는 작지만 다른 문과 달리 계곡 위에 세워져 있어 경치가 남다르다.

남문은 다른 세 문에 비해 규모도 작고 별다른 특징이 없지만 이곳에서 가야시대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옛날부터 이용되던 유서 깊은 곳임을 기억할 만하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21년 8월 23일 ~ 21년 9월 23일)

- ▶ 정기 기부 단위: 만원(기부누계)
- 前 향군홍보실장 이정호 1만원 (284만원)
- 권율부대 강모아 1만원 (74만원)
- 권율부대 김홍수 1만원 (13만원)
- 향군장학재단 정세관 1만원 (7만원)

-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 417-5887)
- ♣ 본 내용은 인터넷 "향군장학재단" 홈페이지(kvaf.or.kr)에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기부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전우여! 어디에 ...

◆신용우씨가 1978년 부산 수송사령부 복무했던 김현기, 김태신 찾습니다. 김현기, 김태신씨와 함께 복무했던 강유만, 배종년, 김종명, 이상열씨와는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신용우 010 9928 1136)

◆임성환씨가 강원도 고성군에서 38관측포대에서 복무한 전우 석계훈 병장, 박근서 병장, 유민호 중사를 찾습니다.
(임성환 중위 010-3343-1423)

◆차주태씨가 1969년 전남 광주 상무대, 1971년 과월 비둘기부대에서 근무하다 1972년 귀국 후 전역했던 김완종씨를 찾습니다.
(차주태 010-7550-0613)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재향군인신문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9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768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찾기 캠페인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실물 훈장을 받지 못한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유튜브 '당신의 무공훈장' 검색

탐방 / 참전기념 시설물 ④ 다부동전적기념관

6.25 전쟁 운명 가른 백선엽 장군의 다부동 전투 기려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위해 장렬히 산화한 한미연합군 영령 추모

올해는 6·25전쟁 71주년이 되는 해이다. 육군 1사단 12연대에서 복무한 필자는 6·25 전쟁 최후방어선인 다부동 전투 당시 1사단장 백선엽 장군과 함께 싸운 선배 전우들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있는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았다.

이곳은 6·25전쟁 때 대구 방어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다부리는 북서쪽으로 유학산이 북방을 향해 황격실을 이루고 있고 동쪽에는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가산(902m)이 있어 방어에 유리하였다. 때문에 이 방어선이 돌파되면 10km 남쪽의 도덕산(660m) 일대까지 철수하게 되어 대구가 적군 포병 사격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다부동전적기념관은 1981년 11월30일 준공하고 1995년 6월24일 구국용사 충훈비 제막식과 구국관 준공 기념행사를 했다.

구국용사 충훈비는 다부동 전투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장렬히 산화하신 국군 1사단, 8사단 10연대, 7사단 3연대 1대대, 미 1기병사단, 미 2사단 23연대, 미 25사단 27연대 장병들의 영령을 추모하고 그 넋을 기리며 후세에 전쟁의 산 교훈으로 삼고자 건립됐다. 충훈비 뒤에는 1994년 9월부터 1997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유학산 일대에서 발굴한 259점의 유해를 합장한 무명용사 묘를 마련했다.

다부동전적기념관에는 탱크 모양의 다부동 지구 전적비가 건립되어 당시 전투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전쟁 관련 장비와 무기가 전시되어 있다.

‘후퇴하면 나를 쏘라’, 백선엽 장군 숨결 느껴져

백선엽 장군은 1950년 8월 낙동강 전선 최대 격전인 다부동 전투에서 8천 명의 병력으로 북한군 3개 사단 2만여 명을 한 달 이상 막아내어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다. 이에 미군은 백선엽 장군을 ‘살아있는 전설’이자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예우하고,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한국군 장교” “최상의 야전 지휘관”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백선엽 장군은 국군 제1사단장으로



서 전투를 지휘하면서 “내가 앞장서 싸우겠다. 만약 내가 후퇴하면 나를 먼저 쏘라”며 도망치는 장병들을 막았고, 두 달 가까이 부하 장병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훗날 백선엽 장군은 이 전투에 대해 전투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았다고, 그리고 자신이 겪은 전투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였다고 회고했다.

낙동강방어선은 부산을 기지로 총반격을 위한 교두보라는 의미에서 일명 ‘부산교두

보’라고 하며 또 위커 장군이 설정한 최후방어선이란 의미에서 ‘위커 라인’이라고도 한다. 이 선은 전반적으로 낙동강에 연하여 설정하였다. 남쪽의 마산으로부터 북쪽으로 현풍, 왜관, 낙동리까지 160km, 그리고 낙동리에서 동쪽으로 영덕까지 80km를 잇는 선이다.

1950년 7월 말로 시간과 공간과의 싸움인 지연작전을 마감하고 8월1일부터 4일까지 낙동강 방어작전으로 전환함으로써 한국전

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다부동은 대구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다부동 서쪽에는 낙동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으나 당시 장마철이었음에도 30년만의 가뭄으로 인해 도섭 가능한 지점이 여러 곳 나타나고 있었다.

다부동 전투(‘50.8.3~9.22)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방어선을 형성한 직후부터 반격으로 전환할 때까지,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대구 북방의 왜관과 다부동 일대에서 제105전차사단으로 증강된 북한군 4개 사단(제1, 3, 13, 15사단)의 8월 공세와 9월 공세를 저지한 방어전투이다.

6.25 최후 방어선 사수 한미연합작전의 대표 사례

이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은 유학산과 다부동 일대에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북한군 4개 사단과 25일 동안의 교전을 전개하여 북한군의 8월공세를 저지한 후 미 제1기병사단에게 진지를 인계하고 신령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진지를 인수한 미 제1기병사단은 다부동과 지천, 도덕산 일대에서 북한군 2개 사단(제3, 13사단)과 23일 동안의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북한군의 9월 공세를 저지하고 대구 북방의 방어선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이 전투로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의 돌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은 공세 이전의 계기를 포착하여 반격작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부동 전투는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에 대해 한미연합군이 함께 방어 작전을 수행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 전투에서 야군은 적 전차 13대 파괴, 적 사상 17,500여명의 전과를 거두었으나 훈련이 안된 신병들이 대거 투입됨으로써 10,000여 명의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경북 출신 청록과시인 조지훈은 시 ‘다부동에서’ ने 그 당시의 처절했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묵묵히 푸른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구국용사 충훈비를 참배하며 숙연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김현우

향군 대학생 인턴기자

다부동에서

조지훈

한달 농성 끝에 나와 보는 다부동은 얇은 가을 구름이 산마루에 뿌려져 있다.
 피아 공방(政防)의 포화가 달을 내리 울부짖던 곳
 아아 다부동은 이렇게도 대구에서 가까운 자리에 있었구나
 조그만 마을 하나를 자유의 국토안에 살리기 위해서는
 한해살이 푸나무도 온전히 제 목숨을 다 마치지 못했거니
 사람들이 문지를 말아라 이 황폐한 풍경이 무엇 때문의 희생인가를
 고개들어 하늘에 외치던 그 자세대로 머리에 남아있는 군마의 시체
 스스로의 뉘우침에 흐느껴 우는 듯 길옆에 쓰러진 괴뢰군 전사
 일찍이 한 하늘 아래 목숨 받아 움직이던 생명들이 이제
 싸늘한 가을바람에 오히려 간 고등어 냄새로 썩고 있는 다부동
 진실로 군명(軍命)의 말미암이 없고 그것을 또한 믿을 수가 없다면
 이 가련한 주검에 무슨 안식이 있느냐
 살아서 다시 보는 다부동은 죽은자도 산자도 다함께 안주(安住)의 집이 없고 바람만 분다.

경 제69주년 향군의 날 축

대한민국 최고 최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가 10월8일 69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국가안보의 산실이자 대한민국의 지킴이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온 재향군인회는 이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9돌 생일을 맞아 환골탈태의 자세로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향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찬 날개 짓을 하며 새롭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창설 69주년을 맞아 향군의 명예와 자부심으로 69년을 함께 해 온 1천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